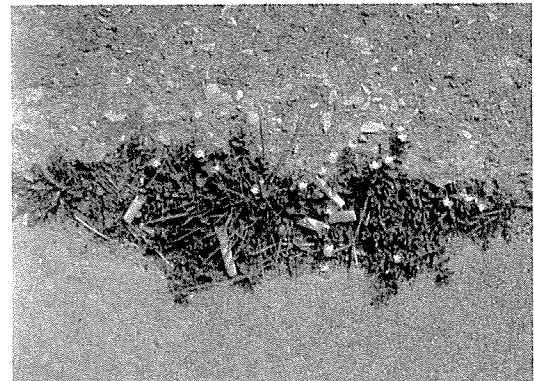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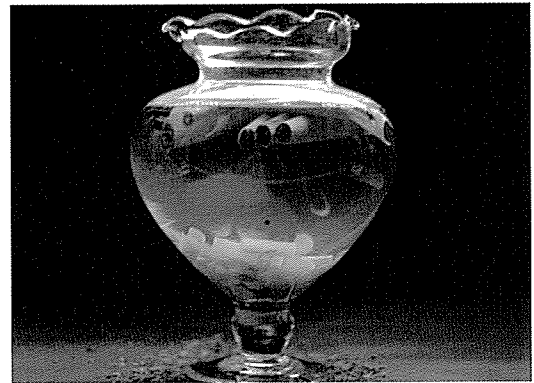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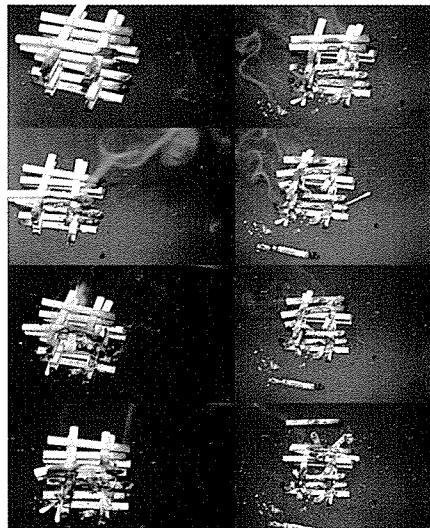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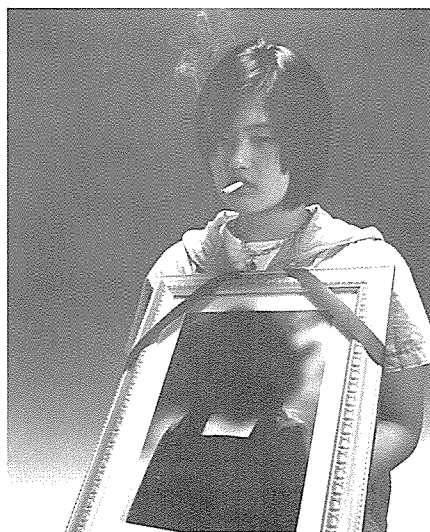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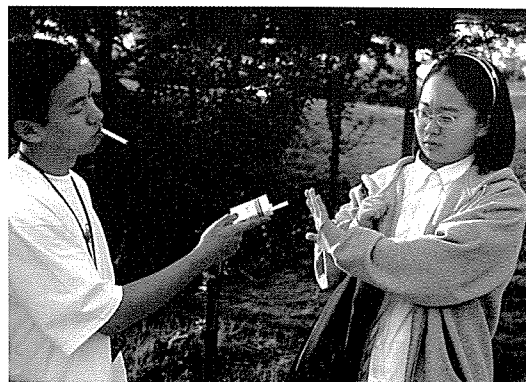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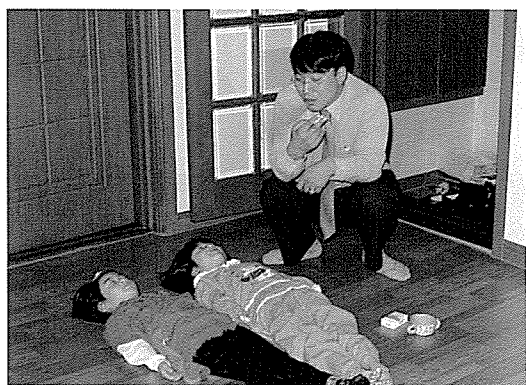


의 선



- ① ③ ① 이창기의 '죽음'
- ② ④ ② 김창곡의 '결심'
- ③ ⑤ ③ 정 동의 '이젠 설 곳이 없다'
- ④ ⑥ ④ 문미영의 '이런 것을 왜'
- ⑤ 남금희의 '날 죽여라 죽여'
- ⑥ 김교철의 '부조화'

# 국민 수상작물 시상전



- ① 조민우의 '담배의 최후'
- ② 김성곤의 '담배! 그 최후'
- ③ 유영해의 '골초도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다'
- ④ 임후선의 '동반자살'
- ⑤ 표삼도의 '금연교육! 어릴때부터'
- ⑥ 권용철의 '담배! 권하지 맙시다'

|   |   |
|---|---|
| ③ | ① |
| ④ | ② |
| ⑤ |   |
| ⑥ |   |